

촉매 학술회의 7월13-18일 COEX 개최

한국화학공학회 촉매부문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4차 국제촉매학술회의(The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atalysis, ICC)가 2008년 7월 15-18일 COEX에서 개최된다.

국제촉매학술회의는 4년마다 전세계의 대륙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학술행사로, 촉매분야의 올림픽으로써 세계에서 개최되는 최대규모의 촉매 학술행사로 알려져 있다.

국제촉매학술회의의 개최는 개최국가의 촉매연구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식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측면에서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 2004년 7월 파리에서 개최된 13차 국제촉매학술회의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제14차 국제촉매학술회의 개최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촉매학술회의는 1980년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2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제14차 국제촉매학술회의의 주된 주제는 <미래사회의 중추적인 기술로서의 촉매>이며, 촉매 원천설계, 촉매반응메커니즘, 촉매반응공학, 에너지·연료 제조용 촉매, 정밀화학·산업공정에서의 촉매, 지속가능한 그린촉매 등 6개의 소분야로 나누어 강연과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술행사에는 2005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MIT 대학의 Schrock 교수의 강연을 포함해 기조강연 6편, 핵심강연 11편, 초청강연 24편 이외에 300여편의 구두발표와 1200여편의 포스터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세계 80여개국으로부터 1500여명의 촉매학자들이 참석해 한국 촉매기술 및 화학산업 수준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8/07/14>